

제민일보

독자기고

타산지석으로 본 공직자 '일상 속 책임'

요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보다 강력한 '행동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행동의 책임'은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현실이다.

얼마 전,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다는 언론 기사를 접했다. 일각에선 쉬는 날 골프를 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며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현재같은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무책임하게 한 행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킨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내려졌



강지연

마음자세를 다시금 다잡아야겠다는 경각심을 느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사소한 생각으로 내 행동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을까 하고 반성을 하면서 말이다.

반성과 함께 든 생각은 청렴이란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강조하는 '책

다는 내용이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고 했던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나는 최근 어떻게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지 떠올리며 공직자의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청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는 잊지 않고 쓰는지,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일상 속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새 2020년도 반이 훌쩍 지났다. '코로나도 6월이면 괜찮아지겠지', '더워지면 코로나도 끝날거야'라고 읊조려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으며 우리 개개인이 '일상 속 책임'을 다한다면 그 기세등등하던 코로나도 인젠가는 끝을 맺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주무관>

제주신문

목민심서를 통해 배우는 교훈, 청렴



김수정
제주도
물정책과

5년전쯤 전남강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강진은 다산정약용의 유배생활 중 10년을 보낸 곳으로 다산의 인생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특히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잇는 아름답고 소박한 산길을 걸으며 정약용의 정신과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

청렴의 상징이 된 다산 정약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조의 총애를 받아 국가 최고 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였으며, 18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목민심서 등 막대한 저서를 남긴 학자였다. 그 분야도 다양해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학, 의술과 범죄학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천재 중 한명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최고의 저서라 할 수 있는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자

신의 삶과 학문을 정리해 총48권 16책으로 구성해 만들어졌다. 조선 후기 지방행정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돼 있다. 그 중 윤기(律己)편에 기록된 청렴과 관련된 귀감이 될 글들을 인용하여 보고자 한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까닭은 그 지혜가 짝기 때문이다”

목민관들이 인격을 수양해 청렴한 선비가 돼야 하고 공무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하고 애민정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200여 년 전 관직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자리로 여겨졌던 시대에 쓴 책이지만, 오히려 현재 모든 공직자의 윤리에 적용되는 구절들이다.

공직자의 핵심은 청렴임을 200여 년이 넘는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다.

청렴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여름 나기



나의 의견

나 경 민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 장마 기간 동안 언론에서 공직자들의 사건사고 관련 기사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런 기사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공직 사회가 제주 지역사회에 크나큰 실망감을 안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제주 지역사회 경제가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공직자의 청렴 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조들이 청렴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德)의 바탕

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어느 시대나 목민관, 공무원이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관으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말인 것이다.

청렴이란 '맑다, 깨끗하다'의 의미인 '청'과, '결백하다, 검소하다'는 의미의 '렴'의 결합이다. 즉,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검소하고 탐욕이 없어 믿을 수 있는 공직자상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러기에 공직자들은 더욱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 불만을 초래하지 않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을 위한 행위라 할 수 있겠다. '얼굴엔 미소, 마음엔 친절, 머리엔 청렴'은 화북동 주민 센터에 들어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문구인데, 이런 태도로 민원을 상대하면 이번 여름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여름이 될 것이다.

21세기 청렴의 의미



박서영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첫 번째이자 공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청렴'이다. 공무원은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청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만약 공무원이 사적 감정에 휘둘러서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을 경우 자계는 소외받는 도민이 생길 것이고, 크게는 불법 인허가 등 권한 남용으로 인한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청렴 담당부서인 청렴혁신담당관을 운영하고, 청렴 관련 감사·교육을 하는 등 21세기에 걸맞은 '청렴'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황희가 간동, 뇌물수수, 살인범은니, 친인척비리 등 다양한 부정부패와 얽혀있다고 한다. 실록을 작성하는 개인의

악감정이 섞여있을 순 있겠지만 조선시대 사관들이 대대로 집필하는 것이니 만큼 낭설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록 내의 황희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청렴'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매우 멀지만 세종대왕은 이 모든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황희의 관리로서의 능력을 높이 사서 덮어줬다.

그러나 만약 21세기에 제주도 공무원이 살인범을 은닉하고, 간통하는 등 실록 내의 황희의 행동을 똑같이 저지른다면 무사할 수 있을까. 아마 조직 내에서 징계나 파면 처분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언뜻 대서특필은 물론 도민들의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청렴 기고문을 쓰면서 21세기 청렴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항상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해 흠탕물 속 미꾸라지보다 투명하고 맑은 물이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내 스스로 다짐해본다.

109 X 141 mm

열린마당

공직자가 지켜야할 덕목인 청렴



강경표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공직자가 지켜야할 의무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건이 아직도 방송을 통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부패행위가 척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질적 덕목의 청렴이라 함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음을 청렴이라고 말하고 싶다.

결국 청렴이란 자기 자신만의 기준점을 정해두고, 그 기준과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의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큰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공직이 아니니 결국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큰 보람이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청렴이란 것이 공직자만의 노력으로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이용하려는 사회적인 청렴도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행위는 당연히 금지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에 '존지'라거나 '인사 정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정'이 청렴문화와는 상충될 수 있다.

공무원이 청렴하고자 하는 것은 청렴하기 위해 청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조리에 맞서 자유롭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청렴이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강건하게 새겨야 하는 것이다.

117 X 155 mm

청렴은 공직사회의 처음과 끝



오 세 나
성산을
주민자치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바꿔놓고 있다. 뜨거운 여름 북적북적했던 해수욕장의 피서객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며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려는 휴가 행렬은 공항에서 보이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올해도 계속 생활 속에 공존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 발생 시 한창 뜨거웠던 이슈가 지금은 어느 순간 무감각하게 다가온다. 종식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청렴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공직자는 항상 청렴해야 한다고 교육받으며 공직사회를 시작했다. 지금도 여전히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에

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 또한 어느 순간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어긋나는 판단을 하곤 한다. 한 번의 방심으로 쌓아왔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각심이 무감각해지는 것과 평탄한 일상생활의 반복으로 청렴 의지가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청렴 교육, 감찰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완전한 종식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항상 주의해 방심하지 않는다면 확진자는 점점 줄어갈 것이다. 청렴도 이와 같다. 부정 부패가 없는 완전한 깨끗한 사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그런 부정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이 사회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108 X 131 mm

청렴 차(清廉茶)와 함께하는 생활

도복지정책과

많은 사람들이 왜 차(茶)를 마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차의 기능적 측면을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허준(許浚)은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차를 '영약(靈藥)'이라 하여 그 약효를 극찬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경험에 의해 차를 약용으로 사용했지만, 현대에는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차의 생리 활성 물질이 발견되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돼 스트레스 완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심신의 안정과 건강 등을 위하여 마시는 차(茶)의 세계는 다양하다. 시대와 유행에 따라 또는 차의 효능에 따라 다양하게 마시는 차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까지 가져다준다. 차를 마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 돼 생활의 일부가 되고, 여럿이



성현숙

더불어 함께 마시면 즐거움이 배가 되는 차는 우리에게 삶의 여유와 향기로움을 가져다 주며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순기능을 하는 차는 공식 생활에서의 청렴하고도 비슷한 점이 많다.

청렴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을 높일 수 있고,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조직의 건강함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이 맑아지고 은은한 향이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청렴차와 청렴의 지속적인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발현하는 생활 속 청렴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려 개인과 조직의 건강이 함께하길 기대한다. 다양한 근무 여건과 빠른 속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짧은 순간만이라도 삶의 여유와 향기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푸르고 푸른 청렴차를 즐기고 음미하면서 뜨거운 여름 건강도 함께 하시길 희망해본다.

215 X 149 mm

열린마당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한 공직사회



김미숙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의 '종합청렴도'는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를 한 것이다. 공무원 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4등급, 밖에서 바라보는 외부청렴도는 5등급을 받았다.

도정 정책에 대한 도민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도정중심과제로 선정해 노력했지만,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

을 근간으로 일상생활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 기준이 됐다. 개인 수준의 도덕성을 넘어 법적 강제성과 의무 수준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이 됐고,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척도로써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상은 그리 복잡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낮은 곳에서 서민들을 섬기는 공직자, 고압적이지 않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공직자 등 이러한 공직자를 바라는 것이다.

국가청렴도가 국가의 신뢰도와 경쟁력에 직결되듯 기관의 청렴도 또한 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께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투명·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새하얗고 매끈해 순수하고 고고한 자태를 간직한 자작나무처럼 공무원 조직도 도민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117 X 155 mm

청렴은 나의 발걸음부터



서귀포시 김골농정과
이재호

작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렴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알아보고자 찾던 도중 이 약동 목사의 이야기를 찾게 되었다.

이약동 목사는 세종 때 제주를 거쳐 간 목사 중 청렴하기로 유명한 인물 중 이전 수령들은 다양한 이유로 착취하였고, 수많은 토산품을 배에 가득 싣고 갔다는 말을 듣고 이약동 목사

는 화를 냈으며, 이후에 오는 목사들에게 부패를 사라지도록 그가 사용했던 채찍을 그대로 두게 하였는데, 그 채찍이 오래되어 썩은 그 자리에 다시 채찍 모양을 그대로 본 떠 돌에 새겨 제주에 부임하여 온 목사들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고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도 이전에 하는 관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바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약동 목사의 마음으로 모두 함께 전체 사회가 바뀌게 될 것이다.

210 X 108 mm

공직자로서 청렴을 생각하다!

여로부터 임금의 방탕이나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는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많은 유랑민과 도적을 발생시켰으며 심지어는 민란에 이르러 국가가 전복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중국은 후한 말기 황제의 무능과 심상시의 전횡으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한나라가 멸망했으며 당 현종은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아 국력이 쇠락해 급기야는 황소의 난과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이 외에도 원나라는 농민반란군의 우두머리인 명 태조 주원장에 의해 현재의 몽고 평으로 쫓겨났고 명나라는 농민반란군 이자성에 의해 멸망했다.

우리도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이후에 정치가 부패해 민란이 발생하고 후삼국 시대로 분열돼 결국은 고려에 멸망하게 된다.

조선은 순조 이후 청음 김상헌의 후손들인 장동 김씨, 조대비 일가, 민비 일가의 백성에 대한 수탈이 도를 넘어 오죽하면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 수리세를 무리하게 부과하면서 동학농민난이 촉발됐는데 이



이충남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를 무마하는 과정에서도 조병갑의 죄는 묻지 않고 일반 백성만 죄를 물었다. 이에 백성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서간도와 북간도(현재 중국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로 관리)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됐다.

따라서 의식이 있는 왕과 선비들은 임금의 방탕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항상 경계했으며 청렴한 관리들을 청백리로 선정해 그들을 기리도록 했다.

국가투명성기구 발표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한국의 부패지수가 최하위권이라고 하며 조세소득 불평등 개선도 OECD 27개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돈과 명예, 현연·학연·지연 등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청렴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땃땃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청렴

삼도1동주민센터



차 무 관

오래전 학교시절 시험감독이 없는 시험을 본 적이 있다.

당시는 학점에 따라 장학생이 결정되고, 졸업할 때에는 취업원서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었기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하였다.

어느날 감독없이 시험본다고 하자 강의실은 술렁거렸다. 그런데 우려했던 부정행위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자 모두가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삼삼오오 흩어졌다.

부끄러움을 알았기에 나를 믿고 학우들을 믿은 것이리라.

청렴은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어 갈등을 하게 된다. 도덕적인 사람에게 겉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도 속으로는 융통성도 없고 세상사는 요령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있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정당화 시키려 한

다.

특히,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비리나 잘못이 드러나면 한결같이 몰랐다, 관행이었다라는 말로 넘어가곤 한다. 그렇게 그들은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후보자에 빗대어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위안을 삼기도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일부 부정행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인 것이다.

개개인이 저지르는 부정행위 빈도는 그 사회가 얼마나 용인해주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큰 권력자이고 재력가일지라도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용인하지 않는 부정행위는 저지르지 못한다.

제도와 규정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땃땃하고 당당한 자존심이 필요하다.

이런 자존심이 사회에 퍼지게 될 때,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대로만 자신들도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이상사회가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나라가 땃땃하고 당당한 자존심이 있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길 바래본다.

공직자로서 청렴을 생각하다



이 충 남
서귀포시
지동치등록팀장

예로부터 임금의 방탕이나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는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많은 유랑민과 도적들을 발생시켰으며 심지어는 민란에 이르러 국가가 전복되는 사례가 허

석보 수리세를 무리하게 부과하면서 동학농민난이 촉발 됐는데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도 조병갑은 죄를 묻지 않고 일반 백성들만 죄를 물었다. 이에 백성들은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서간도와 북간도(현재 중국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관리하고 있음)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게 됐다.

다했다.

따라서 의식이 있는 왕과 선비들은 임금의 방탕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항상 경계했으며 청렴한 관리들을 청백리로 선정해 그들을 기리도록 했다.

청나라는 강희, 옹정, 건륭 황제 100여 년동안 중국 최대의 강역을 이룩하고 강건성세를 이어나갔으나 이후 황권의 쇠약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농민 반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치를 위해 모든 국고를 탕진하고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가 쓸 포탄조차도 없어서 패하고 급기야 신해혁명으로 쑨원의 중화민국에 멸망당한다.

국가투명성기구 발표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한국의 부패지수가 최하위권이라고 하며 조세소득 불명등 개선도 OECD 27개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조선의 경우 순조이후 정음 김상헌의 후손들인 장동김씨, 조대비 일가, 민비 일가의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도를 넘어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며 돈과 명예, 혈연·학연·지연 등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청렴함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108 X 141 mm

청렴과 존재의 가치에 대한 성찰(省察)



나의 의견

박 원 철

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가 한 이 말은 근대철학의 시발점이 된 하나의 명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가끔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존재의 이유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일까?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더 나아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진정 존재의 가치를 돌아보면서윗사람(상사)에게는 공손하고 아랫사람(부하)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천성적(天性的)으로 착한 심정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환경과 물질적, 경제적 요인 등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언가에 의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변화는 곧 너와 나의 생각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문제일 것이지, 존재의 가치는 내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고(思考)의 표현일 것이다.

나는 철학자도 수학자도 아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니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존재의 가치를 누리면서 청렴을 실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며 자기성찰을 통해 청렴의 본질을 깨달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가정과 회사에서 현재와 미래의 청렴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16 X 152 mm